

한동훈 “특별감찰관 관철”... ‘김건희 특검법’ 언급은 회피

국힘 대표 100일 기자회견... “개혁 동력 위해 11월 내 매듭”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 출마엔 “원내·원외 중요치 않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한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의 4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당과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그런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면서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것은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관이고,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못한다면 ‘정말 믿음을 잃고 가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견을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결국 등 떠밀리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미루고 2년 반 동안 해 오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김여사 특검

안을 발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저희가 요청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 득표율이 61%였고 부산의 국정 지지율이 27%였다”면서 “우리가 바꿔볼 테니 기회를 달라”는 약속만으로도 (시민들이) 40%포인트에 가까운 괴리를 만들어주었다. 우리가 민심에 조금만 더 다가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야의 협의를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원내·원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느냐 하는 차원은 생각하지 않고, 당의 위기 극복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당권·대권 분리’ 규정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6개월 전 사퇴해야 하는 내용)을 고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단계가 아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당심과 민심이 정할 문제”라며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 “대선에 야권연대 등 모든 시도”

김재연 대표 7주년 간담회 “尹 탄핵에 국민 호응 끌어낼 것”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30일 다음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진보정당 안에서의 연대와 연합 등을 포함한 모든 시도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창당 7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안타깝게도 진보정당이 가진 불륨이 줄어들었다”며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을 거치면서 가능성의 문을 더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보당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통해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했고, 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을 내는 등 3석을 확보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과의 적극적인 공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보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재

명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였던 심상정·김재연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이제는 야권연대를 더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는 “당장 2026년 지방선거부터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2026년에 대통령이 누구일지 모르겠다. (그 이전에 대선이 치러져) 대통령이 민주·개혁 세력에서 탄생한다면 굳이 민주당과 연대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12월 초까지 윤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중도 클릭 ‘투트랙’

이재명 대표, 김종인 이어 윤여준과 오찬... 다음달 경총 간담회 등 분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론전을 위한 장외집회를 계획하는 데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보수진영의 원로 책사로서 분류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을 하고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앙대 법대 스승이기도 한 국민의당 이상돈 전 의원을 연이어 만나는 등 진영을 넘나들며 ‘경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했다.

또 다음 달 4일엔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에 참석한다. 첫

GPT 개발사 오픈AI 회장 겸 사장 그레그 브로크만 등 AI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자리하는 글로벌 행사다.

이 대표는 같은 달 11일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재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기업 친화적’ 행보도 예고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만큼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만나고, 미래 성장 동력 제시에도 힘쓰며 확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양동 전략’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관심이 원내에서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집중된 만큼 이 대표의 중도확장 행보가 ‘소프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이 대표 재판의 1심 선고도 변수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미 공직선거법 혐의의 1심 선고가 이뤄지는 15일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정국이 ‘특검·사법리스크 불확실’에 빠져들수록 민주당의 전략은 강경 투쟁 노선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이 대표의 민생 행보가 퇴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운영

국정농단 의혹 규명...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명태균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단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고 황정

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황 대변인은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태균과 관련한 의혹이 날로 확산함에 따라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

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에, 김교흥·박주민·이해식 의원을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황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대책과 피해자·유가족 연대, 추모·기억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